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3:14~18)



의롭게 사는 자는 꿈으로 계시해주신다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랄이란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가 절세미인이라는 풍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전조사를 해보니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겁니다. 걸릴 게 없다 싶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날 밤 사라와 동침하기 전 깜박 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창20:3).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나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창20:4).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창20:6)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꾀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의 아내와 여종의 모든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꿈으로 계시하신다

여기서 잠깐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온전한 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혹 올무에 잡힐까봐, 수렁에 빠질까봐 꿈으로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마태복음에도 의로운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마1:19). 이것이 꿈으로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올법대로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마1:20~21). 이에 요셉은 ‘본부대로 행하여’(마1:24)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사울에게 그러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불안하여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삼상28:6). 그러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귀신을 불러올리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삼상28:15). 하나님은 가끔 경고의 목적으로 불의한 자에게도 계시하시는데, 불의한 자들이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를 무시했고, 그는 일곱 해 동안이나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치 말라’는 꿈을 주셨건만, 빌라도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마27:19~26).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무시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사람이 꾀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시73:2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에 계시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요셉의 단을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

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창37:6~10).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든 조급해하지 말고 계시대로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났다고 하여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자 이 소문을 들은 헤롯왕이 동방박사를 궁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고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마2:8)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에 의심치 않고 그리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를 알현하고 나서 돌아갈 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가 있자 그 지시

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마2:12).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랬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마2:13)고 하니,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

까지 거기 있었고,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마2:20) 하니 요셉이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됨을 인하여 두려워하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대로 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온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속버스터미널 옆의 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때 꿈으로 막으셨고, 개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도 우물에 물이 마른 것을 보게 하사 막으셨고, 올림픽공원에서 지금의 88체육관으로 옮기게 하신 것도 꿈으로 보이셨고, 제 건강에 이상이 있음도, 베트남 집회가 무산될 것도, 서울 교회를 비롯해 지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일도, 연산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꿈으로 사농은 교회 성전 부지 설계를 막으셨고... 그래서 저는 서울성전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3:10)라는 자세여야 합니다. 또한 꿈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교회 목사가 꿈꾼 것을 제게 물어보길래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41:16)라고 했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창40: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몽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면 꿈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에게 꿈을 무시하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꿈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십니까? 과감히 그 사람과 연을 끊으세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 늘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꿈으로, 혹은 이상으로 당신에게 계시하사 옳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치 배를 타고 가면 태풍이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움마저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시23:1~4). 세상은 최악이 관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노아 시대에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으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최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와도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긴다.

며칠 사이에 초상이 몇 건이 있었다. 한 가정은 어르신이가 가셨고, 또 어떤 가정은 젊은 가정이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가정은 5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가장을 천국으로 보낸 가정과 아이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가정은 정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이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받아들이고 감사해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깊은 옥에 갇혔다. 그런 어려움에서 요셉이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장영국 목사

나는 목사 안수를 30대 초반에 받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내 주변에는 충분히 내가 손을 내밀면 도움을 줄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마7:7~12)’,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마다 응답하셨다. 그뿐이었겠는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교인 중에 젊은 집사가 있다. 그는 건축 감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6번인가, 7번을 낙방했다. 보통의 사람들이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가정이 있으니 계속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국은 감리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여전히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신다. 지금까지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신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한 삶은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정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여러 차례 함께 일하자고 권했지만, 집사님은 ‘나는 평생 음악만 할 사람’이라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사업을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에서 집사님은 폐업을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라면 음악만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사업을 이어받아 가정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조정 일을 전혀 몰랐던 집사님은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음악만 하던 사람이 뭘 알겠느냐’는 비웃음이 있었고, 아버지 곁에서 일하던 일꾼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베테랑 일꾼 한 분에게 일을 가르쳐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며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

작했습니다. 신뢰가 생겨났고, 떠났던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며 새로운 계약들도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작년 말, 목사님이 감동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서울에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나무가 부러지자 사방에서 복구 요청이 빗발쳤고, 평소라면 일이 끊기던 겨울에 집사님은 2주 내 설 틈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숨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지친 몸으로 그물을 견고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누구보다 경험 많은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 다른 배까지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도전과 모험 없이 절대 성공은 없습니다. 도전 없이 이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진실 사모

약속은 신중히, 이행은 신속히!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내놔도 팔리지 않아서 고민이라며 속히 팔리게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자세히 묻고 팔 집의 주소도 확인한 후 기도뿐만 아니라 직접 가보기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급한 일들로 미루다가 눈이 많이 오던 어떤 날 시간을 내어 드디어 팔 집을 보러 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보고 속히 팔리도록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기도를 부탁한 성도님이었습니다. 좀처럼 전화하지 않는 분이래 웬일인가 하고 받았는데 기도 부탁한 팔 집에 가보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보았고 기도하고 왔다고 답변드리고 흔쾌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전날 다녀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화

하셔서 확인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약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놔야 했을 겁니다. 더욱이 저를 향한 그분의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약속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발행한 수많은 약속 중에 부도수표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밥 한번 먹자’는 약속들 대부분을 부도냈습니다. 약속은 쉽지만, 이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서원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하지 않는다’입니다. 약속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약속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또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최성경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감사를 잊지 말라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잠22:6).

감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부모에게, 이웃에게, 어른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단지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 살아가는 태도이며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감사는 어찌면 금방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은혜를 심고 계신다. 감사가 없다고 해서 삶이 멈추진 않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찢어지고, 소망이 찢어지고, 마음의 문틈으로 슬픔과 외로움, 아픔, 불안과 병이 밀려든다. 한 집사님이 있었다. 예수를 30년 넘게 믿었고, 주일예배는 물론 십일조와 선교, 구제, 봉사까지 성실히 감당한 분이였다. 그러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다. 역울함에 교회만 가면 눈물이 흘렀다고 한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목사님이 심방을 오셨다. 그분은 집사님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노트에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한다. ‘지금 내가 그런 걸 쓸 상황인가?’라며 노트를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루 이틀...,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줄씩 적다 보니 어느새 노트는 감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깨달았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의사의 재검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집사님은 고백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셨지만, 그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병든 마음을 회복시키고, 역울함을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깊고,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임택함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흔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설교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듣지만, 이 설교만큼은 언제나 가슴을 당당히 펴고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바로 십일조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난 달 '십일조를 드려 우리 모두 잘 살자'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날에도 저의 가방에는 세 가지 십일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급 십일조, 연차수당 십일조, 그리고 추가 수입의 십일조였죠.

어릴 때부터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십일조부터 떼게 했던 어머니의 신앙 가르침이 저의 경제관념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십 대 때 처음으로 만 원을 번 날, 어머니는 첫 열매를 알려주시며 그 귀한 알바비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드리기 아까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사이에서 현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인턴이 되어 처음 받은 봉급도, 광고회사에 입사해 처음 받은 월급도, 책을 출간해 처음 받은 인세도, 글쓰기 수업으로 처음 번 수강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지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오래전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

화하다 십일조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중엔 크리스천도 있고,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월급의 십 분의 일을 헌금한다는 말에 모두 적잖이 놀랍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꽤 큰 돈이니까요.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겨우 십 분의 일만 하나님께 드리고 무려 십 분의 구를 내가 가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반평생 형편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현금하지 못한 날도 많았죠. 고등학생 때 제가 가진 전부였던 오천 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드릴 것이 없어 평평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돈 걱정 없는 삶이,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삶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삶이, 아낌없이 헌금하는 삶이, 독립해서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삶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삶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가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루하루 자라나고 차곡차곡 쌓이더니 어느덧 모든 소망

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취업해 매달 십일조를 내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물질이 부족한 적 없었고, 항상 필요한 돈보다 차고 넘치게 벌었습니다. 돈을 더 모으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우수 사원으로 선정돼 특별 상여금을 받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 청탁이 들어와 추가 수입이 생겼죠. 부족한 없는 저의 삶 자체가 십일조의 축복이라 고백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평생 십일조 드릴 수 있도록, 넉넉히 감사한 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임 받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풍족히 효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에 인색하거나 계산하지 않도록 적당한 축복 말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십일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날이 받아 누리며 살아봅시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신은혜

:: 참된 깨달음 ::

연금과 같은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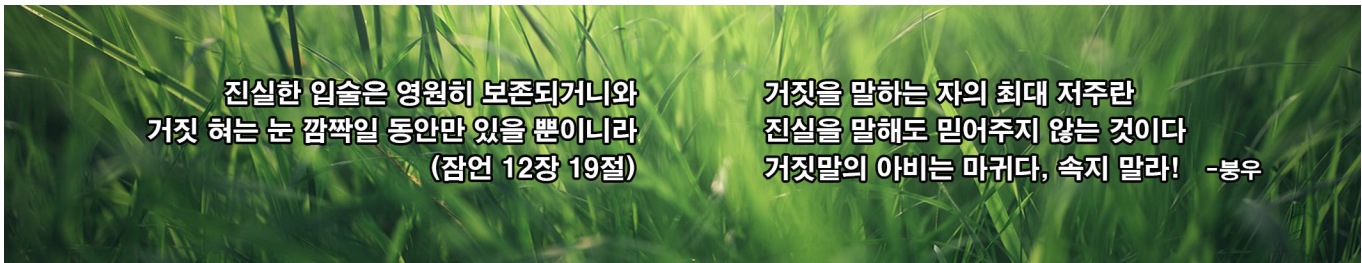
나에게는 대학부와 청년부를 거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해온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노선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기도원집회, 기도 모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영육이 복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한 교회를 한결같이 섬겨온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 대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대학부 사무실에 모여 매일같이 습관처럼 기도했고, 이러한 습관은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물론 인생의 여정에서 레일을 이탈한 기차처럼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쌓아온 기도의 습관 덕분이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연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젊은 시절부터 매달 연금을 적립하면 노년에 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듯, 젊을 때부터 꾸준히 쌓은 기도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기도의 독을 꾸준히 채워두면,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도의 힘이 있었기에 삶의 고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연금을 쌓아가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오늘 쌓는 기도가 인생의 모든 계절을 평안과 감사로 채워줄 것임을 확신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송명국 집사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자의 최대 저주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다, 속지 말라! -봉우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성경 속 우슬초(Hyssop)의 의미와 상징

* 정결의 상징, 우슬초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Ezov(에조프)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Marjoram(마조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릎아플 때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우슬(외무릎, Achyranthes bidentata)과는 다른 식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등장하는 우슬초는 어린양의 피를 찍어 문설주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의식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피와 함께 문설주에 뿌려진 우슬초는 그 가정이 정결하다는 표시이자, 구원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등장한 우슬초**

우슬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즐기에 매달아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슬초에 적서진 포도주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

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정결과 평화의 상징인 우슬초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사용된 것은, 그분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 강인한 생명력과 겸손의 상징**

열왕기상 4장 33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미쳤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교만을,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이 거대하고 당당한 모습이라면, 우슬초는 담장 틈이나 바위 사이에서도 끈질기게 자라는 작고 연약한 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슬초의 생명력은 강인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향과 약효가 유지되며, 정결한 의식과 치료제로 쓰이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 현대의학과 우슬초의 활용**

우슬초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균, 항염, 소화 촉진 등의

약효가 현대 과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차나 에센셜 오일로도 널리 활용됩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호르몬 조절, 항산화 작용, 항암 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슬초가 정결함과 치유를 상징했다면, 현대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치유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영혼을 정화하는 상징, 우슬초**

우슬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닌, 평화와 회복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순간, 목마름을 적셔준 그 우슬초는 단순한 갈증해소가 아닌, 상처받은 영혼을 정화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슬초의 향처럼 우리 삶에도 그 정결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목마른 영혼에게 신선한 향기와 회복을 전해주는 우슬초처럼, 우리 삶 또한 다른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Dr. 설재현 집사